

광주시 건설기술자 현장 설명회



광주시는 25일 광산구 우산동 광로 7호선~운남택지 도로개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술자 60여명을 대상으로 4분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우체국 경로당에 생필품 전달



광주 광산우체국(국장 배준호)은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칠성 경로당을 방문, 도배·장판 교체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 가스레인지 등 생필품수품을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지역쌀 8억3천만원어치 구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5일 광양시청에서 이성용 광양시장과 공운찬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쌀 사주기 협약'을 체결, 20kg들이 백미 1만7천600포대(8억3천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동신대 차동업 신부 초청 특강



동신대(총장 정기언)는 25일 대학 철단 강의실에서 '무지개 원리'의 저자 차동업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여수엑스포 유치 1주년 김대성 여수시준비위 고문

“앞으로 3년 ... ‘손님 맞이’ 공부 하자”

“집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들이 마음 편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내용물도 채워야죠.” 27일이면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가 확정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 여수 박람회 개최까지는 3년여 남았다. 박람회를 유치한 산증인인 김대성(65)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 고문은 “박람회는 국제적 약속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며 “정부가 SOC 확충 등 하드웨어를 갖춰간다면 우리는 손님을 초대할 주인으로서 자질과 소양, 매너를 갖춰 손님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수박람회는 2012년 그

때만 열리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고 강조한다. 50년, 100년 후를 내다본 ‘남해안시대’를 여는 기폭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남이나 여수나 한정하지 말고 영·호남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영·호남이 함께 남해안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김 고문은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여수에 그것 보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부가 아쿠아리움 건립에 95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로는 국내 관람객도 끌어모으기 힘들다. 이왕 투자하려면 동양 최대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외교관 출신인 그는 앞으로 남은 3년여 동안 ‘손님 맞이’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다. 외국 손님에게 인사하는 법, 음식 매너 등을 모든 여수시민들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아무 말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김 고문은 광주서중·일고(6회),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으며 주 모토 코드사관 공사, 주 세네갈 대사, 2010여수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여수시 준비위 고문 겸 상임 집행위원, 동신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언론재단 이사장 고학용씨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고학용(66·사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회 선임됐다. 한국언론재단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1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 위원을 이사장으로 제청하고 서옥식(64)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사업이사), 김문오(59) 전 대구MBC 보도국장(기금이사), 신상신(48) 불교방송 보도국장(연구이사) 등 3명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고 이사장은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조선일보 논설위원, 관훈클럽 총무,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기금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제4부 중재위원 등을 맡고 있다. 고 이사장의 취임식은 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앙박물관 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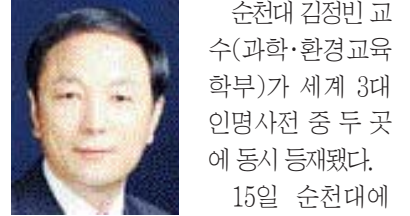
사장에 강성만씨 임명



강성만(47) 전 국정홍보처 공보지원담당관이 25일 (재)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에 임명됐다. 신임 강 사장은 임기 3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을 비롯한 중앙박물관 부대시설의 경영을 맡게 된다. 강 사장은 목포 출신으로 서강대 영문학을 나와 미국 루이지애나 Baptist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휘경여고 교사, 광주일보 기자, 국정홍보처 공보지원담당관, 농림부장관 정책보좌관, 한나라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대 김정빈 교수

인명사전 두곳 동시 등재



순천대 김정빈 교수(과학·환경교육학부)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두곳에 동시 등재됐다. 15일 순천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미국 인명정보기관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와 영국 국제인명센터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두 곳에 등재됐다.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는 이 밖에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가 있다. 김 교수는 절대 인명사전의 전문가로서 저널화와 동원소지구화학 분야에서 130여편의 논문 및 특허를 발표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법시험 화제의 합격자

“세 아들에 자랑스러운 아버지 될 터”

11년 직장생활 후 법대에 전남대 출신 서성일씨



“이제는 미안한 아버지가 아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25일 발표된 2008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중 서성일(39·전남대 법학과 2000학번)씨는 뒤늦게 꿈을 이룬 세 아들의 아버지이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광주기계고교를 졸업한 뒤 삼성전자에서 11년간 근무하다 지난 2000년 전남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후 2005년 사시 1차에 합격했지만 두 차례 2차 시험에서 낙방한 뒤, 다시 적성인이 됐다. “수험생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와 남편이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늦게 시작한 공부를 한 번하고

포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이경운 교수님의 진화를 받고 다시 법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막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이번 시험에서 최종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2차 시험이 끝난 지난 7월에는 ‘복덩이’ 셋째 아들까지 얻어 경사가 겹쳤다. “2차 통과 이후 면접에 대한 긴장감으로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는데 비로소 기나긴 시험이 끝났다는 게 실감난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 시작을 앞둔 서 씨는 사법 연습원을 마친 뒤 소외계층을 위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각장애인에게도 독서권 보장돼야”

음성 교재로 6년 공부 시각장애인 최 영 씨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군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25일 시각장애인으로는 사상 최초로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다는 낭보를 전해들은 최영(27·서울대 법대 졸업)씨는 “축하한다”는 인사에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부터 먼저 꺼냈다.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행성 질환으로 2002년 말부터 책을 읽을 수 없는 3급 시각장애인이 된 최씨는 이후 5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이날 1천5명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저시력 때문에 학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던 최씨는 장인 욱(1999년 별세, 전 강원산업 회장) 복지재단이 제공한 문서 음성화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교재를 계속 읽을 수 있었다. 최씨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고 누구나 얘기하지만 정작 시각장애인들이 얻는 정보는 거의 없다”며 “무엇보다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군도 다양해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최씨는 “무슨 일을 할지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만은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뉴스

‘파일럿’ 체험한 광주대 여교수들

공군 1전투비행단 방문 T-50 시뮬레이터 조종

광주대 여교수들이 ‘파일럿’ 체험을 했다. 광주대 여교수회(회장 박미애 음악학부 교수) 교수 10여명은 지난 24일 오후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 세계 최고 성능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시뮬레이터)을 조종했다. 여교수들이 시뮬레이터에 탑승, 항공기를 이륙하

고 서남해안을 운항한 뒤 기지로 돌아오는 비행술을 체험한 것.(사진) 여교수들은 1천여원을 들여 지은 지상교육훈련대대를 둘러본 뒤 우리 나라 공군 최초 부대인 제1전투비행단의 부대 연혁 및 역할과 공항 주변 소용 감소 대책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또 전투조종사가 되기까지의 양성 과정 및 교육체계를 익혔다. 한편 광주대는 이번 부대 견학을 계기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를 통해 양 기관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박화강(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한정희씨 차남 민재준 김재수·김여순씨 장녀 정은양=29일(토) 낮 12시 운암동 그랑시아웨딩타워 5층 그랜드볼룸.
▲김현웅(광주시 도시건축국장)·김명성씨 장남 재승근 김명성·이향남씨 장녀 문미영=29일(토) 낮 1시 상무지구 에블루션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홀.
▲그레임·샬리씨 차남 이안군 노승희(학다리고 광주·전남문화회관, 전 국민은행 지점장)·고영숙씨 장녀 채린양=29일(토) 오후 4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 A홀.
▲강봉식·조영덕씨 3남 삼백(곡성 오산초 행정실장)준 조동호·김영순씨 장녀 송희(전남대병원 간호사)양=30일(일) 낮 12시 양동 웨딩

의 전당 금호 3층 노블레스홀.

- ▲박래웅·성경숙씨 장남 민선준 이귀현(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정기숙씨 장녀 슬희양=29일(토) 낮 1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2층 로즈메리홀.
▲김기승·정혜숙씨 장남 남균군 한애련(화순 오성초 교사)씨 삼녀 강수정양=29일(토) 오후 2시 서울 공화웨딩문화원 2층 루비홀.
▲박춘주(대한세라믹스 대표이사)·김재희씨 장남 건영(의정부지검 검사)군 김도빈(법무사)·김점중씨 딸 금현양=29일(토) 낮 1시 서울 대경호텔에서식장.

동창·동문회

- ▲광주 북성중 26회 동창회(회장 이형선) 월례회=26일(수) 오후 7시 영미오리당, 062-527-0249.
▲광주 북성중 27회 동창회(회장

윤영천) 월례회=27일(목) 오후 7시 장어촌, 062-368-3392.

- ▲광주공고 총동창회(회장 김영삼) 2008 정기총회=28일(금) 오후 6시30분 지산동 베네치아어 산내들, 062-233-9363, 511-1946.
▲광주남중 19회 화북회(회장 박해임) 정기모임=28일(금) 오후 7시 북구 용전동 용전체육식당, 016-624-6631.
▲광주 북성중 28회 동창회(회장 윤준철) 월례회=28일(수) 오후 7시 등촌, 062-373-1566.
▲광주 40회(회장 박성훈) 송년회=12월3일(수) 오후 7시 무암동 월드뷰페, 010-4627-9118(총무 김형록).

중친회

- ▲동래정씨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정현영) 이사회의 겸 합평·영광

세거지 집성촌 순방=27일(목) 오

- 전 9시 광주 삼복회관 앞 출발, 011-9615-8567.
▲광산시에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고) 송년회=12월1일(월) 오후 6시30분 삼복회관 대강당, 018-616-5755.

향우회

- ▲재광 순창향우회(회장 공병철) 월례회=29일(토) 오후 6시 북구 중흥동 코리아하우스, 062-511-2121, 010-3624-0030.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부음

- ▲임낙이(전 전남도교육위원회 교육국장)씨 별세 진주(SC제일은행)·창주(변호사)·현주(재능교육 사업국장)·영주(자영업)씨 부친상 전세일(삼부토건 오만지사장)·김우식(자영업)씨 부부상 윤미숙(공인 회계사)씨 시부상=발인 27일(목) 전남대병원 영안실 1분향소, 062-220-6981.
▲김중수씨 별세 형군(광주 서구청)·용철(전남도교육청)·철(SK텔레콤)·진희씨 부친상 김성철씨 부부상=발인 27일(목) 각화동 그린 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이원호씨 별세 정민순씨 상배 용훈·영숙씨 부친상=발인 27일(목)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김경순씨 별세 백기만씨 상배 선일·종일·미선씨 모친상=발인 27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385.
▲김영태씨 별세 일주·계주·상

수·상래씨 부친상 주정섭씨 빙부상

- =발인 27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김선순씨 별세 손장욱·종만·종수·종민·종환·영자씨 모친상 김기만씨 빙모상=발인 27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신현수(신용관리기금 초대 이사장)씨 별세 김순(동일유통(주) 대표이사)·선련(메릴린치증권 이사)·용련·주련(성약가)·우순(엑센츄어(주) 팀장)씨 부친상 김홍업(전 국회의원)·홍시교(국가정보원 이사관)씨 부부상 임혜경(한양여대 교수)·김미영씨 시부상=발인 26일(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02-2072-2091.

02-2072-2091.

- ▲허영심씨 별세 장 일(전남도의원)·진영씨 모친상=발인 26일(수) 진도장례식장, 061-544-4744.
▲이춘욱씨 별세 이태수·호관씨 모친상 김창현(영암 금강농장)씨 빙모상=발인 26일(수) 영암 성심장례식장, 011-9184-1140.
▲정복순씨 별세 이성신·광민·광순씨 모친상 김도기·윤충철씨 빙모상=발인 26일(수)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이중식씨 별세 대학·로순·연희·애영씨 부친상 오중택·허창명·이진욱씨 부부상=발인 26일(수)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프리드 현대중앙상조 1688-3740